

# 지역병원, 파업 전공의 미복귀 속 하반기 모집

### 전남대·조선대 사직서 수리 보류 레지던트·인턴 모집은 예정대로 사직 처리시 '수도권행' 가능성 의사 국가시험도 파행 '불가피'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 접수가 시작된다.

전국에서 1만여명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광주 내 주요병원은 의대 증원 반발로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잠정 연기하고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 정원을 확정·제출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2일부터 각 수련 병원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련평가위)에 제출·신청한 올 하반기 전공의 정원에 따라 모집 절차에 나선다.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하고 다음 달부터는 각 수련 병원 단위로 필기·실기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최종 합격하면 하반기 수련 일정이 9월1일부터 시작된다.

전남대병원엔 진료 일선을 이탈한 전공의 231명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한 채 수련평가위에 올 하반기 모집 정원으로 레지던트 28명만 신청했다.

조선대병원 역시 임용을 포기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00여 명의 사직서 처리를 잠정 보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은 인턴 36명·레지던트 4명으로 확정, 수련평가위에 제출한 상태다.

2차 의료기관이지만 수련 제도를 운영 중인 광주기독병원도 사직서를 낸 전공의 19명 중 4명만 사직 처리했다. 수련평가 위에는 하반기 모집 전공의 정원보다 4명을 신청했다.

이들 병원 모두 하반기 모집 정원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와는 무관하며 이미 정원 미달인 일부 진료과에 한해 수련 전공의를 충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도, 사직도 거부한 채 현원만 차지한 상황에서도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뜻이다.

원래 전공의가 수련 도중 사직할 경우 '일 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 없으나, 정부는 올해 9월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수련 병원과 정부 모두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이 지속된다면 신규 충원도 여의치 않은 만큼, 이탈 전공의의 복귀 설득에 매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작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복귀하거나,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기보다는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거나, 입대나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사례들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정부가 하반기 모집에 권역별 지원 제한조치 해제하면서 현 소속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빅

5' 병원으로 대표되는 수도권으로의 의료 인제 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사직 처리를 하면 해당 전공의들은 다음 달까지 수련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모집에는 특례가 적용돼 기존 연차·과목으로 응시가 가능한 데다, 정부 방침 변화로 수련 환경이 좋은 수도권 병원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이유로 이탈 전공의의 사직 처리는 그대로 둔 채, 정원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섰다 분석

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단체는 물론이고 의료계 전반에서 의대 증원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6개월째 일선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미달에 그칠 경우 올해 1년은 사실상 전공의 수련 체계가 '울스탑' 되고 결국엔 지역 의료 인력 태부족만 심화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의대생의 의사 면허 취득 관문

인 국가시험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2일부터 26일까지 의사 국시 실기 시험을 접수하는데 내년도 국시를 치러야 할 의대 본과 4학년 대부분이 이미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대부분의 의대생이 끝내 국시를 거부할 경우 매년 약 3000명 배출되던 신규 의사 공급이 끊긴다. 이로 인한 전공의 감소, 전문의 배출도 밀릴 수밖에 없어 의료 현장의 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광주진로진학박람회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이 지난 2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진로진학박람회에서 1대1 수시 대입 진학상담과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 등을 받고 있다. 나건호 기자

## 광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대책 시급"

### 평균 13.44%... '0원' 6곳 달해

광주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이 '2023학년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 본재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평균 13.44%에 불과

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7% △중학교 6.95% △고등학교 16.21% 등이 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의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광주송원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등 6곳으로 드러났다. 반면 완납 학교는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등 4곳에 그쳤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건물 구입 등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는 등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의 근본적 원인이 '시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는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법정부담금 평균 3%도 안 되는 사립초등학교는 학생선발권 보장 등 특권에 가까운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재정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해 시교육청은 조례 등 근거를 마련해 이들 학교에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전체 평균

1.7%로 매우 낮았고, 3.5% 이상인 법인은 1곳(정송학원)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법인이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약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촉구했다.

강주비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

## 전국 총판/대리점 및 영업사원 모집

파크골프 100만 시대, 국내 최고 파크골프채 생산 브랜드 뉴월드파크골프와 함께 할 파트너를 찾습니다.

1. 총판/대리점 : 파크골프 관련업체 종사자 우대 (각 지역 전체)
2. 영업사원 : 파크골프채 판매에 관심있는 분 (차량 소지자 우대)
3. 판매 품명 : 파크골프채, 파크골프용품
4. 대표전화 : 1551-7150, 010-3509-4191
5. 본사주소 : 경북 고령군 개진면 치산길 26 (보경잔디농장내)  
생산공장 :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길 22

**NEW WORLD PARK GOLF 뉴월드파크골프**